

광주비엔날레 전시작품 파손 재단, 1억500만원 물어줬다

손배 청구소송 일부 패소 확정
先 배상 후 보험사에 소송 검토
고가 작품 안전관리 대책 시급



2010년 광주비엔날레 전시 후 반환 과정에서 파손된 작품. 점선으로 표시된 상단 측면 모서리 일부가 깨졌다.

지난 2010년 광주비엔날레에 전시됐던 15억원대 작품이 반환과정에서 파손됐다며 독일 유명 갤러리가 광주비엔날레재단(이하 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광주일보 2013년 12월 30일자 12면)에서 재단이 최종적으로 일부 패소해 1억 500만원을 배상했다.

광주비엔날레 전시 기간 수시익원에 달하는 고가의 작품들이 오고 감에 따라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재단이 작품 관리 시스템 전반을 점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부장판사 이경춘)는 독일에 있는 미하엘 베르너 갤러리가 “작품이 전시됐기에 14억2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재단과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에게 1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작품이 전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소송비용은 갤러리가 10분의 9를, 재단이 나머지를 부담할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단은 사전에 작품의 특성을 파악한 후 특정 부위에 압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보다 넓은 면적의 밴드를 이용하는 등 표면의 손상을 막을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했다”고 밝혔다. 재단이 작품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미하엘 베르너 갤러리도 사전에 재단이나 운송업체에게 별도의 구체적 취급 방법을 지시하는 등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주의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재단의 책임을 한정했다.

재단은 지난 2010년 열린 광주비엔날레 전시를 위해 이 갤러리로부터 제임스

리 바이어스의 1987년 작 ‘최초로 완전히 의문스러운 철학의 형상’ 등 3점을 가져와 전시했다. 하지만 그해 11월 전시가 끝나고 작품을 반환하기 위해 운송업체와 포장하는 과정에서 1점의 상단 측면 모서리 일부가 파손됐다.

이번 사건은 최근 광주비엔날레 전시가 평면 작품 보다는 파손 우려가 큰 설치 작품 위주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재단이 사전에 해당 갤러리와 작품 운송·관리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이 갤러리가 광주비엔날레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배상금 지급은 재단에만 주문했다는 점이다. 이 갤러리가 보험회사와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재단을 통해 계약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달 30일 이차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갤러리 측에 손해배상 금액을 먼저 지급한 재단은 이 금액을 보험회사로부터 받기 위해 추가 소송을 해야 하는 처지다. 재단은 아직까지 소송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못했다.

한편 재단은 아이웨이웨이의 35억원대 설치작품 파손 소송에서는 대법원까지 가는 끝에 승소했다. 재판부는 “이 작품이 운송 전까지 완전한 상태였다가 운송 과정에서 파손됐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며 처음부터 파손된 작품이 운송된 것으로 판단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軍, 무등산 철수하나...이전 논의 본격화

국방부 “대체부지 마련되면 정상 군부대 이전할 수 있다”
광주시·공원관리공단·국방부
이전 위한 협의체 구성

광주·전남 지역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국립공원 무등산 정상에 군부대 이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방부가 대체 부지가 마련되면 무등산 정상에 군부대를 이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데다 국방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광주시가 최근 군부대 이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본격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광주 광산)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립공원 무등산 정상에 위치한 군부대 이전 문제와 관련 지난달 22일 권 의원을 만나 작전 수행에 제한이 없는 대체 부지가 마련되면 부대 이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아울러 현재 군부대 부지가 모두 사·공유지로, 이전 비용 마련을 위한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전 비용, 타 부대 영향, 작전임무 수행 측면 등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광주시는 또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관계자 실무협의를 갖고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향후 국방부 입장을 바탕으로 부대 이전 방안을 구체화하고, 무등산 정



잠 못드는 열대의 밤

“땀별 더위와 ‘열대야’(熱帶夜)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5일 광주시 남구 승촌보 캠핑장을 찾은 가족들이 밤바람을 맞으며 দু리위를 식히고 있다. 승촌보 캠핑장은 지난 6월부터 오토캠핑장에서 차량출입이 불가능한 일반 캠핑장으로 전환돼 운영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상 개방과 환경보전 등 시민 편의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권 의원은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은 지난 50년 동안 지역민들의 숙원이었다”며 “방호 임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 곳으로 부대가 이전할 수 있도록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

했다. 앞서 권 의원은 “올해 12월 말 토지 사용기한이 종료되고 사용허가 연장이 안 되는 경우 무단점유 상태가 되므로 국방부가 이전계획을 책임있게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현재 광주시가 새 이전 후보지에 건물을 지어주고 군은 현재 부지를 내놓는 기부

대 양여 방식, 국방부가 환경부와 협의해 자체적인 특별 회계를 통해 이전 비용을 마련하는 방식 등이 논의 중이다.

무등산 정상인 천왕봉 해발 1187m 고지에는 공군 제898부대 예하 3포대가 지난 1966년부터 주둔 중이다.

최현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인권·평화 복합센터’ 조성 돌파구

광주를 세계적인 인권 도시로 만들기 위해 추진중인 ‘민주·인권·평화 콤플렉스’(Complex·복합) 조성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올 연말에서 내년초 광주시 북구 삼각

동으로 이전하는 문흥동 현 광주교도소 부지 내에 들어설 예정인 ‘민주·인권·평화 콤플렉스’는 지금까지 광주시가 구치소 건립에 필요한 대체 부지를 제공하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희호 여사
평양 도착

남북관계
돌파구 여나
▶관련기사 5면



광주교도소 부지에 건립
시, 구치소 대체 부지 2곳 제시

미술관, 인권평화기념공원, 인권유스호스텔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광주를 민주주의 역사의 고층과 교육, 체험, 문화, 인권중심의 복합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세계적 인권중심과 민주평화의 상징적 도시라는 이미지를 높이는 등 브랜드 제고도 기대된다.

교도소 부지 10만6천여㎡에 인접한 부지 등 모두 19만7천여㎡에 국비와 민자 등 131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착공, 2022년 완공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북구 삼각동으로 교도소가 이전하면 그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학교설립 61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에게 ‘파업’이 아닌 ‘대화과 타협’을 통한 단체협상에 협력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노사가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를 진심으로 호소 드립니다

회사는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직원들에 대한 ‘동종업계 최고 수준 대우’ 약속을 지켰고 앞으로도 지켜나갈 것입니다

금호타이어는 반세기 넘게 지역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성장해온 항토기업으로 글로벌시장에서 승승장구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자랑스러운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원천 없는 노사관계 속에 잘못된 관행의 반복으로 회사는 워크아웃 이전까지 경쟁사대비 1조원 가까운 비용을 더 지출하여 그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이 기간 중 노동조합은 높은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요구를 반복하며 단 2년을 제외하고 매년 파업을 단행하여 매출기준으로 그 손실 또한 약 4,000억원에 달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금호타이어는 경쟁력을 잃게 되었고 결국 2010년에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지역의 성원과 금호타이어 모든 구성원의 희생과 노력으로 워크아웃을 졸업하고, 이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금호타이어의 2015년 단체협상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또 다시 노조는 파업을 결의하고 파국으로 치달고 있습니다. 회사는 아픈 과거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워크아웃 기간중인 지난 2012년도에 ‘워크아웃 졸업 후 동종업계 최고 수준의 대우’라는 약속을 하였고 작년에 워크아웃을 졸업하자마자 약 25.6%의 임금인상과 별도의 격려금을 통해 즉시 이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나아가 경영실적은 여전히 업계에서 뒤쳐져있지만 보상은 업계 최고 수준을 계속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2015년 단체교섭에서도 제시하여 노사간에 신뢰를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단체교섭에서는 무리한 임금인상보다는 회사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자고 노동조합측에 요청하였습니다. 회사는 노조의 지난 파업 찬반투표 때 경영진이 직접 나서 사원들에게 극단적인 파업의 선택을 막기 위해 호소문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의 성급한 파업결정은 회사와 지역경제를 또 다시 멍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이런 노력과 진정성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파업을 가결시켰고, 임금인상과 성과급에 대한 수정안 없이는 어떠한 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사원들의 미래 그리고 지역경제를 담보로 ‘파업’수순을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회사측의 제시안이 지난 7월 14일 나간 이후 단 2차례의 교섭을 끝으로 노사가 회사의 제시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성급하게 파업을 강행하려고 합니다.

모두가 우려하는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파업’은 회사와 지역경제를 더욱 힘들게 만들 뿐이며 노사 모두와 지역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파업’은 워크아웃 기간 동안 각고의 노력을 통해 회복한 회사의 경쟁력과 고객에 대한 신뢰를 다시 무너뜨릴 수 있으며, 회사의 경영악화로 이어져 결국 회사의 직원들과 가족 그리고 수 많은 협력업체를 비롯해서 지역경제에도 큰 불행으로 닥쳐올 것입니다.

금호타이어 노사와 지역민은 과거 노사갈등과 파업의 결과가 얼마나 지역경제와 기업을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회사는 노동조합에게 이번 단체협상의 원만하고 조속한 타결을 위해 ‘파업’이 아닌 ‘대화과 타협’으로 협력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금호타이어가 ‘파업’이라는 혼란 속에 빠져 또 다시 위기에 몰리지 않고, 현재의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눈물로 호소드립니다.

2015. 8. 6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김창규 율림